Q1. 지역인재7급 수습직원 제도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시게 된 계기? / 언제 준비를 시작했고 총 준비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합격자 1
- 학교에 처음 지원할 때부터 알고 있었고, 선배들이 지역인재 7급으로 합격을 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있었음.
- 공무원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진로 고민을 했을 때, 남들이랑 경쟁하고 나를 뽐내는 직업보다,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하고 국가에 봉사하는 직업이 더 보람차고 끝까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됨.
- 처음부터 지역인재 7급을 보고 왔기 때문에, 학교생활을 할 때 계속 학점 관리, 대외 활동 같은 경우는 대학교 내내 꾸준히 했고, PSAT 준비 같은 경우에는 6월부터 차츰차츰 시작해서 8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음. 제대로 공부한 기간은 6개월 정도.

합격자 2
- 대학에 오기 전부터 공무원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앞선 합격자 선배분들의 설명회를 듣고 이 제도를 알게 됨. 해당 설명회를 통해 정말 잘 맞는 전형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됨.
- 이 학교에도 학생부 교과를 통해 들어올 만큼 공부 습관이 들여져 있어 학과 상위 10% 이내라는 추천 조건을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음.
- 일반적인 전형과 달리 행정학, 행정법 등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돼서 필기시험 준비가 더 용이하고 최종 면접도 상대적으로 훨씬 덜 힘들다고 생각했음.
- 지역인재를 목표로 삼은 건 2학년 1학기 이후 학교 현장 관리와 토익 등 자격 요건을 준비하다가, 4학년 1학기 학교 수업을 병행하면서 기출 풀고 과목당 하루 7문제씩 분석하는 등 기출 맛보기를 진행했음.
- 본격적인 준비는 막학기를 휴학하고 2023년 7월 중순부터 총 8달 정도를 집 앞 스터디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하였고 한 번에 졸업 예정자로 합격할 수 있었음.

합격자 3
- 졸업을 앞두고 취업 방향성을 고민하다가 공무원, 공기업, 사기업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보고 하고 싶은 일이 뭘지 고민함.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이중 전공을 경영을 했기 때문에 좀 재무나 회계 쪽을 생각을 했었고, 공무원은 행정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역인재 전형에 일반 행정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대학일자리센터 선생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준비를 결심.
- 5월부터 기본 강의를 수강을 먼저 하며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교직 이수랑 학교 수업 병행을 위주로 하였음.
-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 준비 기간으로는 총 10개월 정도, 그 중 제대로 PSAT이나 헌법을 공부한 기간은 7~8개월 정도임.

합격자 4
- 학사 공지 보다가 지역인재 7급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고 자격 요건이나 준비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보다가 경력개발센터에서 하는 합격자 설명을 듣고 나서 제대로 관심을 갖게 됨

- 9월부터 마음을 먹고, 시험 준비 시작했던 거는 10월부터 총 5개월 정도를 준비.
- 다른 교내 활동들은 23년 1학기부터 쌓아옴.

Q2. 구체적으로 준비할 때의 긴 과정에서 '몇 월에는 이러이러한 것을 공부하고 준비했다' 처럼 언제 무엇을 준비했는지 자세하게 궁금합니다.

합격자 1
- 12월까지는 기출을 5회독 돌리고 기본 강의를 모두 끝내겠다라는 목표였음.
- 7월에는 7급 국가직 시험을 한번 봤었는데, 그걸 위해 7급 PSAT을 기초로 5회독하였고 8, 9, 10월까지는 언어 논리랑 자료 해석, 상황 판단 기초 강의 기본 강의 등을 2회독하면서 기본기를 다져갔음.
- 10월부터 11월까지는 기출 5회독했고, 12월에는 헌법을 한 번 돌리고 또 언어 논리, 논리 퀴즈 강화 약화랑, 자료에서 계산이 약해서 부족한 부분 강의를 듣는 것으로 12월은 끝났음.
- 1월에는 PSAT 캠프에 들어가서 그 시간표대로 생활하면서 자료 해석이 계속 부족해서 유형별 문제 풀이랑 상황 판단 자료에서 언어 논리 심화 강의를 계속 들었음.
- 2월에는 모의고사를 풀었는데 하루에 5~7회 정도 풀면서 많은 문제를 빨리 풀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함.

합격자 2
- 자료 해석에서 계산 연습은 하루하루 빠짐없이 꾸준히 했음
- 3월부터 6월까지는 5급 기출 10개년치를 한번 풀어보고, 하루 7문제씩 분석해 보는 등 기출 맛보기 진행. 점점 기출에 익숙해지기 시작해서 언어, 자료, 상황 각 과목 모두 60점대 이상씩 나왔음.
- 7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는 과목별로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 접근 방식 등을 배움. 완강 후에는 이를 노트에 총정리해 봄으로써 다시 전체적으로 이해했음
- 10월까지는 기초 2회독을 진행. 기본 강의에서 배운 개념 접근 방식 등을 실제로 적용한다고 생각하면서 풀고 분석했음. 하루는 풀이 및 채점, 이틀은 분석함. 이때는 다 70점대 이상 나왔음.
- 기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11월부터는 다른 사설 모의고사를 사서 풀기보다는 기출 3회독을 12월까지 했음. 하루는 풀이 채점, 하루는 분석함. 하루는 단권화 노트에 과목별로 해당 연도 내용을 추가했음
- 오전에 헌법 기본 강의를 듣고 복습하고, 완강 이후 헌법 기출 문제집을 1회독했음.
- 1월에 교내 선발 과정이 있어 이를 준비하는 데 1월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
- 이전 모의고사 성적이 꽤 괜찮아서 자소서에 넣어 합격 가능성을 어필.
- 1월 이전에 모의고사를 한번 치러보는 거 괜찮음. 나머지 시간에는 헌법 기출 문제집을 계속 2회독했음. 교내 선발 준비로 인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조금은 쉬워졌음.
-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2월에는 기출 4회독을 실시.
- 이때는 3회독으로 이미 문제별로 알맞은 접근 방식을 알아 그걸 적용하며 풀었음. 모두 90점대 이상씩 나왔음. 헌법 기출 문제집 3회독을 이때 실시.
- 각 과목의 접근 방식을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 1월 말부터 2월 중후반

까지는 법률저널 모의고사 6~9회를 치렀음. 이후 10개년 기출과 평가나 노트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등 마무리에만 몰두했음.
- 시험 전날에는 시험장 주변 숙소에서 헌법 정리본, 헌법 기출 문제집 중 헷갈렸던 문제들을 보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음.
- 더 많은 정보는 지역인재 다음 카페 합격 수기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니 한번 보는 거 추천.

합격자 3
- 5월엔 일단 기본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을 파악함.
- PSAT이라는 과목을 처음 접해서 점수가 20점 정도로 낮았기 때문.
-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도 가늠이 안 왔었기 때문에 과목을 파악하고자 프라임법학원에서 세 가지 과목이랑 헌법이 묶여진 패키지 수강.
- 6월에는 학업과 병행하면서 조금씩 보는 정도,
- 7월에는 PSAT를 시작해서 PSAT 공부에만 몰두.
- 8~9월에도 PSAT 공부만 했지만 공부만 하다 보면 지칠 것 같아 단기 알바를 같이 병행.
- 10월부터 PSAT과 헌법을 병행.
- 헌법은 12월부터 해도 된다는 그런 합격 후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하면 너무 늦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시작
- 11월에는 똑같이 PSAT 헌법 병행.
- 12월에는 교내 면접 준비까지 병행.
- 교내 면접 준비로는 자소서 작성 준비.
- 2월에는 한 달이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에 집중.

합격자 4
- 10월부터 12월까지 학부 재학 중이기 때문에 세 달 동안 기본 강의를 수강. 종강 이후 기출 문제 풀이. 학사일정 때문에 12월까지는 거의 기본 강의만 수강.
- 12월에 종강하고 지역인재 준비반에 있었는데 바로 받은 모의고사와 시험 일주일 전에 제공 받은 모의고사 풀이.
- 1월달에는 9개년 기출 문제를 시간 재가면서 모두 풀이, 같은 방식으로 3회독.
- 헌법도 기본 강의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점수가 저조해서 헌법 특강을 사서 2월달에도 보면서 점수 유지하려고 노력함.
- 시험 일주일 전에는 시험지와 똑같은 b4 사이즈로 주문을 해서 하루에 한 세트씩 공부하면서 자신감과 실전 감각 끌어올리려고 노력.

Q3. 교내선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교내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하셨었는지?

합격자 1
- 교내 선발 면접을 그렇게 길게 준비하지 않았음. 대신에 학교 대외 활동을 많이 한 편으로 대외 활동들 중에서 책임감과 공직 역량을 뽐낼 수 있는 활동들을 추려서 정리함.

– 면접관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팀워크 혹은 리더십이나 책임감, 공직 윤리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뽐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스크립트를 작성했었음.
– 봉사활동 경험도 적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어필. 교내 면접에서는 보통 기본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음. 자기소개, 지원 동기, 팀 활동할 때 대처법 같은 질문들이 많았음.
– 공직과 관련된 경험, 희망 부처를 물어보셨었는데, 희망 부처와 희망 사유를 물어봤음. 기본적인 질문들 하는 대신 꼬리 질문들이 많았음. 활동 사유와 활동 후 얻은 것들을 물어보셨음.
– 사설 모의고사를 좀 많이 봤던 편이었기 때문에 이를 정리해서 이런 점이 부족하고 그때 자료 해석을 못하고 있었는데 자료 해석을 이렇게 보완할 것이라고 공부 계획을 말씀드림.
– 평소 어떤 부처에 가고 싶은지, 그 부처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그 정책을 위해 가져야 될 자세나 능력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음.

합격자 2
–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고 웅변이 많이 안 좋은 편이라 학점 평균을 위주로 승부를 봄. 학점 평균은 총 4.41, 석차 비율 1.89%로 지원함. 토익과 한국사도 기준보다 더 높으면 면접 동점자를 가를 때 좋게 작용할 것 같아 토익 870점 한국사 1급을 준비했음.
– 자소서 내에 교내 활동란과 교외 활동란이 있는데, 교내 활동란에는 교내 근로 장학생 한 학기, 교육 보조 인력 한 학기, 연구보조원 6개월을 작성.
– 면접 위원분들은 합격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이 시험에 대한 이해도와 열정을 중심으로 작성했고, 모의고사에서 받았던 높은 성적도 작성해 합격 가능성을 더 어필.
– 추천서를 미리 받기로 정해놓았던 지도 교수님께 존재감, 성실성, 장점 등을 인식시키기 위해 해당 교수님의 수업을 2학년 때부터 열심히 듣고 다 A+을 받았음. 그 교수님께서 추천서를 아주 세세하고 좋게 써주셨음
– 교내 면접의 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작년 설명회 지역인재, 다음 카페, 각종 공무원 준비 관련 카페를 참고해서 많은 예상 질문들을 수집해서 답변 준비. 시사 이슈에 관해서도 물어보실까봐 정책 뉴스를 많이 챙겨봤지만 이에 관해서는 묻지 않았음
– 자소서에 관해서도 물어보실 것 같아 여러 번 읽고 갔지만 자소서 및 추천서에 관해서는 안 물어봄. 개인마다 질문이 다름.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희망 부처 및 이유, 희망 부처의 2024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 헌법 과목을 통해 얻은 점을 물어보셨음 정부행정학부라 헌법 과목을 수강했기 때문에 헌법 과목을 통해 얻은 점에 대해서 여쭤보심.
– PSAT 과목 중 가장 자신 없는 과목과 그 점수대가 어떠한지 여쭤보셨는데, 사실대로 가장 약했던 상황 판단이라고 답을 드렸고 보통 70점에서 75점 정도 맞는다고 답함.
– 희망 부처 질문에 대해서는 면접 위원분의 입장에서 희망 이유가 납득되게 실제로 가고 싶지 않아도 본인의 경험과 특성을 기반으로 준비해 가는 게 좋음.
– 이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문장을 그대로 외워 가지 않는 것을 추천. 지원 동기를 달달 외워 갔는데 실제로는 긴장돼서 외운 게 생각나지 않음.

합격자 3
– 교내 활동란에 100시간이 넘는 봉사시간을 상세하게 기재. 그리고 봉사뿐만 아니라 대내외

활동을 적는 칸도 있었음. 토익이나 한국사 등 기본적인 자격증이라도 공부원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면 모두 기재함.
- 공무원의 직업과 본인 경험들의 연관성과 미리 준비했다는 계획성이 어필되도록 정리
- 교내 면접 질문에는 가장 먼저 기본 자기소개를 시작, 이후 자기소개서에 기반된 질문과 공부 계획, 모의고사를 친 이후였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 질문.
- 생각보다 면접 시간이 굉장히 짧았음. 약 10분 내로 예상.
- 그 중 공부 계획에 많은 시간 할애한 것으로 기억.
- 필기를 붙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을 어필하여 좋은 분위기로 이끌었음.

합격자 4
- 교내 활동이나 교외 활동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
- 조교 활동, 크림슨 브레인 학회 활동 및 교내에서 운영하는 PBL과 캡스톤 디자인도 참여.
- 외부에서 서포터즈 활동 및 봉사 활동도 하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는 것을 어필.
- 지역 인재 준비반에서 합격자와 멘토링을 했던 것이 도움이 크게 되었음.
-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동기나 합격하면 가고 싶은 부처에 대해서도 질문 받음.
- 모의고사 점수와 자기소개서에 기반한 질문을 위주로 받았음.

Q4. PSAT 공부량은 어느정도로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주일 루틴은 어떻게 잡았나요? 인강 또는 학원 수강 유무 어떤 자료,교재를 통해 PSAT 공부는 하셨는지?

합격자 1
- 9월에서 12월까지는 집 앞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함.
- 루틴은 9시까지 스터디 카페를 가서 언어 논리 2회독을 하고, 자료에서 2회독하고, 집에 와서는 상황 판단 기출 2개를 풀었음.
- 기출을 자주 풀다 보면 답도 기억나고 빨리 풀 수 있어서 하루에 2개씩 풀 수 있었고 부족한 인강 들었음.
- PSAT 캠프에 들어가서는 시험 시간표대로 운영되어서 8시에 그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과목들에 대한 교재를 새로 사서 어떤 게 부족한지 생각해 보고 문제를 풀었음. 9시가 되면 헌법 모의고사 한 번 풀고, 10시 되면 언어 논리 모의고사 풀었음. 자료에서 모의고사 풀고, 밥 먹고, 상황 판단 모의고사 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시험 시간표대로 생활했음. PSAT 캠프 내에서는 수요일이랑 토요일에는 무조건 법률 저널 모의고사를 보는 걸로 되어 있어 다 본 후에 채점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그날 저녁에 바로 오답 노트를 했음.
- 공부 시간이 짧았던 만큼 하루에 공부량도 좀 많았는데 10~11시간 정도 공부했음.
- 일요일은 5시까지만 공부함.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딱 5시까지 공부하고 그 뒤에는 그냥 푹 쉬었음.
- 인강은 과목마다 다 다르게 들었는데 처음 인강을 정할 때 저에게 맞는 강사님을 찾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강사님의 맛보기 영상을 다 들어봤음.
- 헌법은 금동은 원장님, 언어 논리는 박은경 강사님, 자료 해석은 조훈 강사님, 상황 판단은 최원석 강사님 들었고 거의 강사님마다 풀-커리큘럼을 탔음.
- 근데 각 강사님마다 사이트가 모두 다름. 사이트 계속 옮겨다니는 게 힘들면, 한 사이트에

서 듣는 것도 나쁘진 않음. 대신 강사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계속 공부하는 게 중요함.
도움이 됐던 교재들은 '고시4989' 사이트를 가면은 기출 교재들을 제본해서 판매함.
- 그 교재를 두 권 사서 한 개는 기출 푸는 용도. 한 개는 기출 정리하는 용도로 썼음
- 이렇게 5급은 10회독하고 민경채는 5회독함.
- 강사님 교재들이랑 입법고시 문제도 한번 1회독 돌렸음.
- 자료해석 개선 훈련을 많이 함.
- 조훈 강사님 비타민 교재도 많이 사용했고 강화 약화 매뉴얼, 논리 개념 매뉴얼 사용함.

합격자 2
- 일주일 루틴은 주로 토요일에 한 번씩 쉬면서 일주일에 6일씩 계산 연습, 헌법, 언어, 자료, 상판 순으로 공부함.
- 하루 순 공부 시간은 평균 8시간, 최소 7시간은 채우려고 노력함.
- 학원 다니지 않고 주변 스터디 카페에서 인강 수강 기출 풀이 및 분석으로 독학함.
- 언어 논리와 같은 경우는 인강은 박은경 강사님의 스텝 2 즉 기본 독해 강의를 들었음. 이 강의가 너무 좋았던 게 성실히 복습하고 강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기본 독해 즉 지문과 선지를 제대로 읽는 방법이 개선가능했음.
- 교재는 7급 기출은 1회독을 했고 5급 기출은 10개년을 4회독 했음. PSAT은 고시 4989에서 파는 이나우 기출 해설집을 활용함. 2020 박은경 언어 독해 100문 플러스 a를 1회독, 논리퀴즈 매뉴얼을 3회독, 강화 약화 매뉴얼을 2회독 했음. 기출을 4회독을 했는데, 3회독 때 단권화함.
- 언어 논리는 반복 나열, 벨비 구체화 등 지문 속 장치를 한눈에 정리해 봄으로써 어떤 장치가 출제됐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음. PSAT이 좋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단어들과 유의어, 반의어 등을 함께 정리했음.
- 언어 논리를 풀 때, 상대적으로 약했던 논리퀴즈 유형과 같은 경우는 시간이 남으면 가장 쉬워 보이는 두 문제만 집중해서 푸는 전략을 활용.
- 모든 문제 공통적으로 지문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글을 전체적으로 본 후, 지문에 들어가고 나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지를 찾는 걸 연습함.
- 자료 해석 인강은 석치수 강사님의 기본 강의만 들었음. 이후 복습 2시간 이상을 반복해야 개념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완강 이후에도 배웠던 개념들을 노트에 한 번에 정리해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했음.
- 개인적으로 석치수 강사님께 강의가 살짝 어려웠어서 각자 맞는 강사 분을 찾는 걸 추천. 교재는 석치수 강사님의 기본서를 2회독, 계산 훈련서를 2회독, 비타민 계산 연습 중에 덧뺄셈은 3회독, 곱셈, 나눗셈은 각각 10회독 진행.
- 계산 연습이 너무 좋았던 게 효율적인 계산 방법을 자연스레 터득할 수 있었던 것 같음. 자료 해석도 마찬가지로 5급 기출을 10개년을 4회독했음.
- 고시 4989에서 파는 석치수 강사님의 기출 해설집을 활용.
- 단권화를 진행했는데 각 연도별, 유형별로 주요 풀이 방법과 함정 단어들을 한 노트에 정리해서 기출 문제에 응용하면서 익숙해질 수 있었음.
- 상황 판단 인강은 최원석 강사님의 베이직 단계를 들었음.
수강하면서 대강의 풀이 개념만 획득하고 말았음. 더 온전히 배우시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와

이후 단계도 듣는 걸 추천.
- 교재는 최원석 강사님의 기본서를 2회독하고 유형별로 배운 어휘 정선지 우선지 표현 및 풀이법을 총정리했음
- 이지은 퀴즈 120제라는 퀴즈 모음집도 풀었고, 5급 기출 10개년을 4회독 했음.
고시 4989에서 파는 박준범 강사님의 기출 해설집을 활용했음.
- 상황 판단을 풀 때 썼던 전략은 강했던 일치형 법률형 계산형 문제는 다 맞추자, 약했던 퀴즈형은 풀 수 있는 문제 위주로 천천히 풀자라는 전략 활용
- 각 연도별, 유형별로 주요 어구 및 풀이 방법을 단권화함.
- 헌법 진입 시기는 11월이었고 임강은, 김유향 강사님의 기본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꾸준한 복습 진행. 사용한 교재는 김유향 강사님의 기본서를 1회독, 김유향 강사님의 기출 문제집을 3회독함. 이후 자주 나오는 빈출 개념 및 판례 헷갈리는 개념을 한 종이에 총정리함으로써 시험 직전에 유용하게 볼 수 있었음.
- 헌법을 풀 때 사용했던 전략은 맨 앞부분인 헌정사는 버렸음. 헌정사가 헌법 시험에서 거의 매년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이를 위해 다 외우는 것은 기회비용이 안맞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 패스 제도이기 때문에 너무 일찍 시작하기보다는 11월쯤부터 바짝 준비하는 것을 추천.
-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헌법과 PSAT 과목 모두 모의고사를 봤었는데 오직 법률저널 전국 모의고사로만 총 5회를 치렀음.
- 하지만 이 법률저널 모의고사가 너무 어려웠지만 실전에서 워낙 긴장하는 스타일이라 현장감을 익히기 위해서 치르고 세부적인 분석은 따로 하지 않았음. 성적 백분율에도 크게 개의치 않았음.
- 이 모의고사가 많은 도움이 됐는데 현장감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됐고, 생리 현상 타이밍 조절, 답 마킹 연습, 새로운 문제를 접근하는 연습, 풀이 시간 조절에 많이 도움이 됐음.
본 시험을 치를 때도 정말 모의고사 보던 느낌대로 치를 수 있어서 좋았음.
- 더 많은 정보는 지역인재 다음 카페 합격 수기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좋음.

합격자 3
- PSAT 공부량: 항상 9시간 이상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되는 날은 많이하고 일주일 중 지칠 때 하루 쉬는 형식으로 공부했음.
- 가장 취약했던 자료 해석 부분의 공부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일주일 루틴은 강박은 없되 9~10시 사이에는 공부 시작을 목표로 하였음.
- 2월부터는 시험에 패턴을 맞추려 오전 6시에 일어나서 시험 시간표대로 공부하였음.
밤샘 공부는 하지 않음.
- 수 연산과 분수 비교는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산 연습은 매일 하였음.
- 수 연산 교재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재를 이용하여 공부함. (석치수의 자료)
- 헌법은 12월쯤부터 암기를 위주로 양을 늘렸음.(기본서와 판례 요약집)
- 언어 논리, 상황 판단 퀴즈만 묶어놓은 교재로 풀이.(김지은의 상황판단 퀴즈 등) 언어 논리 중 강화 약화 파트 부분에 이회황의 강화 약화 교재 이용.
- 인강이나 학원은 기초 강의만 수강.
마지막에는 판례 요약집 교재 풀이 및 OX 헌법 어플 이용하여 암기 항목을 잊지 않도록 노력

하였음.
- 밤돌이 PSAT 사이트(기출 해설)를 통해 오답 노트를 만들고,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사이트에 14개년 기출 문제를 4~5회독 풀이 진행하였음.
- 시험지와 같은 크기의 제본 문제도 풀이하며 반복하였음.
- 메가 PSAT 오프라인 법학원, 랩스탠다드 등 사설 모의고사 대부분 풀이.

합격자 4
- 기본 강의는 프라임법학원 5급 기본 강의 패스 패키지를 구매하여 인강으로 수강.
- 강사로는 박은경, 신헌, 하주응 강사가 있었으며, 가격이 저렴해서 결정.
- 기본 강의 수강 후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한 경험이 있어 공부법에 맞는 강의를 선별하기를 추천.
- 1월 종강 후 기출 문제를 A4 용지에 뽑아 시간 재가면서 혼자 풀었음.
-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약 5번, 하루 3~5시간씩 공부했고, 종강 후부터는 주말 포함 매일 하루 7시간 이상, 많게는 9~10시간씩 공부, 가끔 휴식. 교내 면접 후엔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
- 헌법은 2월에 이해황 강사의 "8일 만에 80점 만들기" 강의를 수강하며 도움을 받음.
- 자료 해석은 김승환 강사의 교재를 독학으로 풀었고, 그 후 점수가 많이 올랐음.
- 언어 논리는 박은경 강사의 강의만 듣고, 추가로 인터넷에서 읽기 자료를 검색해 공부했으며, 기출 문제 위주로 학습.
- 상황 판단은 기출 문제와 패스 패키지에 포함된 강의로 공부했으며, 법조문 문제는 인터넷에서 법조문만 모아둔 책을 구해 공부했음.

Q.5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면접 분위기는 어땠는지

합격자 1
- 피티윤 강사님 인강으로 공부함. 주 3회 스터디에 들어가서 주 3회 만났고, 개인 발표, 상황 문제, 경험 문제가 있는데 경험 문제에 굉장히 취약했음. 빠른 시간 내에 경험을 생각해 바로 쓰는 게 힘들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었음.
- 주말에는 노량진에 직접 올라가서 피티윤 강사님 인강을 듣고 직접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가졌음. 강의에 집중도 되고 피티윤 강사님이 좀 무서워서 만약 무서운 면접관님이 있다면 이렇게 답을 하고, 떨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음.
- 지역인재 면접 준비 시기가 한 달 반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긴데, 정보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정책 우수 사례집, 정책 브리핑의 정책 뉴스, 기획재정부의 열린 재정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자기 전에 보고 또 활용함. 만약 면접에서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했음.
- 우수 사례집 같은 경우에는 상황 문제에서 만약 너가 주무관인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라고 물어보는데, 이런 우수 사례가 있다는 말을 근거로 하면 굉장히 좋게 봐주시기 때문에 정책 우수 사례집을 많이 보고 배우면 좋음.
- 면접에 현재 엄청 핫한 이슈는 나오지 않으니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보면 됨.
- 2차 면접 질문은 거의 정해져 있어서 면접 자체가 개인 발표하고, 상황 과제 답변을 드리고, 개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밖에 없음. 대답을 빨리 해서 면접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개인

질문을 좀 많이 받았음. 당시 발표 주제가 MZ 공무원 퇴사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런 자료들을 다 떠나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고, 희망 부처랑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정책을 알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물어보셨음.
- 면접 분위기는 웃으면서 계속 대답을 해서 약간 적당한 긴장감 속에서 화기애애하게 면접 분위기를 가졌음.

합격자 2
- 최종 면접은 지역별로 할당된 합격자 수 컷이 있고, 세종은 거의 우리 학교가 유일해서 거의 매년 비초과 지역으로, 초과 지역에 비해 떨어질 확률은 적으나 절대 이 최종 면접을 무시해서는 안 됨.
- 비대면 학원이라도 다녀 무난한 정도는 해두는 걸 추천. 한 달 반 동안 준비했음. 강의는 피티윤 강의를 수강했는데, 이 강의는 비대면이고, 다른 강의에 비해 훨씬 싼데 스터디 줌 실시간 피드백도 지원해 주셔서 좋았음.
- 이 강사님이 하라는 대로만 잘 따르면 무난히 준비할 수 있음. 강의를 들으면서 비대면 면접 스터디 1개를 병행했음. 스터디는 주 1회 실시.
- 최종 면접은 개인 발표, 경험 과제, 상황 과제, 추가 질문 이렇게 4개로 구성. 개인 발표부터 상황 과제까지 이 3개는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각각 미리 주제를 주고 작성하게 함.
- 면접장에서의 질문은 본인의 작성 내용에 따라 달라짐. 개인 발표에서는 보행 안전 공무원의 퇴직률 증가 등 현실의 이슈에 관한 개념, 문제점, 관련 자료 등을 제시해 주시고 해당 이슈의 현황, 대책 방안에 대해 작성하게 함.
- 경험 면접에서는 조직이나 단체의 이익과 충돌 및 갈등 경험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해야 하는 질문들이 나옴. 이때 인턴이나 봉사, 동아리 같은 경험이 꼭 없어도 됨. 알바나 팀 프로젝트 얘기를 많이 쓰기도 함.
- 상황 면접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집단 거주지를 형성한 타 지역 이주민들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민원하는 상황과 같이, 어떤 특정 상황을 주고 실제 주무관이라면 어떻게 대처할지 묻는 주제들이 나옴.
-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에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희망 부처 등 본인의 생각에 대해 주로 물음. 이 추가 질문 파트는 면접 시간이 좀 남았을 때만 함.
- 면접은 총 30분 동안 면접관 3대 면접자 1로 진행되는데, 실제로 하면 시계도 못 보고 질의 답변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짐.
- 면접 분위기가 막 딱딱하고 무서울 줄 알았는데 면접관분들이 답변을 듣는 동안 고개도 많이 끄덕여주시고 웃어주시기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였음.

합격자 3
- 온라인 수강 후 시험이 끝나면 가채점 시스템을 통해 합격 여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음. 각 학원마다 점수를 입력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시험 직후 바로 면접 학원에 등록했음.
- 커트라인 근처인 경우에도 면접 학원 등록 후 불합격 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함. 본인은 3월 말에 면접 학원을 등록하고, 5월 면접까지 준비했으며, 스터디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대비했음.
- 카페에서 스터디를 구한 것 하나와 학원에서 짜준 스터디 하나로 총 두 개의 스터디에 참여했음. 일주일에 두 번씩 스터디만 해도 많은 양을 연습하고 말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그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다만 초과 지역 분들은 서울, 부산 같은 경우 두 개의 학원을 다니기도 했음. 하지만 미초과 지역에서는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싶음.
- 질문은 경험 상황과 개인 발표로 나뉘는데, 경험 관련 질문은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조율했는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묻는 경우가 많음. 꼬리 질문으로 이어지며, 상황이나 개인 발표는 주무관으로서의 일 처리 방식이나 제안한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경험 상황에서는 다 같이 모여서 제안 시간을 20분 주고 제시문을 작성함. 하지만 작성한 제시문은 걷어가기 때문에 다시 읽어볼 수 없었음. 그래서 평소 준비할 때 썼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복기하는 습관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둠.
- 자리 이동 후에는 30분 동안 발표문을 작성함. A4 용지 4장 정도 주어지며,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적어야 했음. 본인은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 문제를 다룬 제시문을 받았음. 공무원 이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처 방안과 그 결과를 예상하는 흐름으로 작성함. 이 발표문은 들고 가서 대기 중에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본인은 오후 첫 번째 순서였음.
- 오히려 첫 번째 순서가 덜 떨리는 것 같았음. 면접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무난하게 웃으면서 잘 끝났다고 생각함. 꼬리 질문이 많아 면접 시간이 30분 내내 꽉 채워질 정도로 많은 대화를 나눴음.
- 면접 시간 30분은 경험 상황과 개인 발표로 나뉘어, 각 10분 정도씩 질문을 받았음. 면접관들은 내가 간과한 부분이 있는지 파악하려고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음. 하지만 아직은 면접에 신경 쓸 단계가 아니고, 필기시험이 끝난 후 준비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함.

합격자 4
- 면접 준비는 1차 합격 후 4월부터 인강(PTU) 수강을 통해 약 한 달간 준비.
- 교외에서 스터디를 진행하며 스터디원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실전 연습하였으며, 실제 면접에 큰 도움이 되었음.
- 면접 질문은 경험 문제, 상황 문제, 개인 발표 문제로 패턴이 정해져 있어, 인강이나 학원을 통해 충분히 준비 가능하다고 판단.
- 면접은 오전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덕분에 긴장없이 떨지 않고 웃으며 잘 마무리. 스터디를 통해 모의 면접을 연습하며 실제 면접에서는 덜 긴장할 수 있었음.
- 면접 준비는 학원이나 인강 수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꼈음. 면접 질문에 대한 고민은 나중에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PSAT 점수를 가장 우선시 하길 권장.

Q6. 공부하다가 슬럼프가 오셨던 적이 있으신지, 슬럼프가 왔을 때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부하면서 멘탈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합격자 1
슬럼프가 두 번 왔었음. 첫 번째는 11월 말이었는데, 그 이유가 지역인재 하나만 보고 달려와서, 떨어짐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음. 이로 인해 불면과 악몽에 시달림.
추천서를 써준 교수님을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으니, 함께 미래에 대해 고민해보자고 제안해

주심. 만약 떨어진다면 법원직 공무원이나 지방직 7급으로 돌리거나, 입법고시도 조금 더 공부하는 것으로 미래 계획을 세웠었음.
두 번째 슬럼프는 1월 말. 처음 모의고사 성적은 대략 30%대로 좋았는데, 1월 말에 갑자기 자료 해석이 뚝 떨어지면서 성적이 백분위 66%로 훅 낮아졌음. 이 성적은 법률 저널이니까 믿으면 안 되는데, 본인은 믿었고 슬럼프가 왔음.
어차피 나는 3월에 이 시험을 볼 거고,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식으로 계속 자신을 단련시켰음.
그래서 더 공부했음. 다른 분의 합격 수기도 찾아보고, 유튜브도 찾아보고, 공부법을 다시 점검하고, 실수 노트 점검을 하면서 왜 틀렸는지 계속 봄.
슬럼프는 빨리 극복하는 게 가장 좋음. 극복을 못하면, 집중을 못하게 되면서 그 시간을 날려버리게 됨. 어딜 놀러 가거나, 계속 공부법을 점검하면서 빠르게 극복을 하는게 좋을 것 같음.
본인은 밥 먹을 때, 정말 하기 싫을 때는 알쓸신잡이나 어쩌다어른 같은 철학 관련 유튜브를 봤음. 언어 논리 배경지식을 쌓는다고 생각하며 멘탈 관리를 했음.

합격자 2
지역인재 특성상 매일 PSAT 3~4 과목씩만 계속 공부하니까 슬럼프가 올 수밖에 없음.
어느 순간 하루하루 반복되는 삶이 지겨워짐. 그래서 하루하루를 똑같이 공부하지 않고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공부했음. 어떤 날은 아침에만 집에서 간식을 먹으면서 공부하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스터디 카페 자유석으로 옮기는 등 장소를 이동해서 공부했음. 이러한 새로운 느낌들이 그 지겨움을 좀 덜어줌.
공부하다가 다른 생각이 들면 합격하면 뭐 할지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공부 의지를 올렸음.
매주 하루씩만 쉰다 해도 지치는데 한 달에 한 주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씩 쉬면서 스트레스를 온전히 해소하는 시간을 가짐. PSAT은 무조건 많은 시간을 들인다고 해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게 아님.
그 시간 내에 얼마나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느냐가 중요함.
시험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해소하면서 공부하느냐가 멘탈 관리와 공부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함.

합격자 3
큰 시험을 준비하면서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슬럼프는 아니었다고 생각함. 많은 공시생들이 SNS를 차단하고 세상과 단절하는 반면, 본인은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연락을 유지하며 혼자 두려워하지 않으려 함. 연락을 단절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응원 덕분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이러한 멘탈 관리가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강조함.
공부의 지루함을 느낄 때 단기 알바와 인턴 경험을 통해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짐. 8월에 일주일 동안 팝업 스토어에서 일하며 하루 종일 활동하는 경험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줌. 또한, 1월에는 행정인턴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공무원으로서의 경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함.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공부만 하는 것에서 오는 슬럼프를 피하고자 함.

합격자 4
짧은 준비 기간 동안 슬럼프를 겪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혹사시키며 공부에 집중하려고 노력함. 불안한 생각이 들 때는 핸드폰을 하거나 누워 있다가도 늦게라도 공부하러 나가서 더 공부함. 슬럼프에 빠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공부를 계속하려다 보니, 친구들과의 만남은 짧았고 부모님과의 대화가 많아지게 됨. 다이어리를 쓰면서 계획과 반성, 감정을 기록하며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고 회상함.
이런 감정을 털어놓을 곳을 하나 정도 만드는 것도 멘탈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임.

Q7. 지역인재 7급을 준비하시면서 공기업 및 다른 취업준비를 같이 병행하셨을까요? 만약 지역인재 7급을 준비할 경우 한 쪽에만 올인해서 준비해야 할까요?

합격자 1
- 이 시험을 준비할 때는 올인해서 준비를 했었음. 만약 떨어진다면 국회 공무원이나 지방직 7급을 계속 준비할 생각이었음. 그래서인지 몰라도 그 길이 훨씬 어렵고 경쟁률도 세다는 걸 알고 있기에 더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음.
- 올인을 추천하지만은 않음. 면접을 볼 때도, 교내 면접을 볼 때도 떨어지면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게 모두 날아가는 거라 긴장감과 압박감이 엄청나고, 또 PSAT 시험을 볼 때도 엄청 심하게 오기 때문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집중도 잘 못하게 됨. 만약 떨어지더라도 뭘 할 것인지 정도는 세워두시는 걸 추천함.
- 병행을 할 수 있다면 같은 과목인 PSAT이니 다른 지방직 7급이나 국가직 7급도 생각하면서 공부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합격자 2
- 공무원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알게 된 2학년 1학기 때부터 오직 이 제도만 바라왔었음.
- 준비 과정을 통해 저의 인내력, 내가 인생에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해서 성취했다는 보람, 성취감 등을 얻을 수 있었음.
- 공기업 등을 병행한 필기 합격자 분들도 몇몇 봤었는데, 두 케이스로 나뉜다고 생각됨. 하나는 병행하면서 둘 다 열심히 준비해서 필기도 합격하는 케이스, 또 다른 하나는 병행으로 인해서 정신줄을 못 잡고 흐지부지하게 공부해서 불합격하는 케이스로 나뉘는 것 같음. 둘 다 놓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만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함.
- 병행하고 싶으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게, 이 지역인재 공무원에 대한 열정이 좀 부족했던 분들은 합격해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으시거나 얼마 되지 않아서 퇴직하신다고 들었음.
- 그래서 열심히 둘 다 잘 할 수 있거나 공무원이 엄청나게 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병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함.

합격자 3
- 짧은 기간 동안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것이 충분한 투자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병행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보험 같은 태도라고 느낌. 한 가지 목표에 확고하게 집중하기로 결심했으며, 만약 실패할 경우 다른 길을 고려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교수님들과 합격자들, 스터디원들과의 대화에서 병행을 추천하는 의견도 많았고, 특히 공기업과 은행 쪽, 7급 및 9급 공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음.
- 본인의 꿈의 목표에 대한 어떤 명확성과 같은 방향을 설정을 해두고 좀 비슷한 계열이 있다면 같이 병행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함.

합격자 4
공무원 준비를 처음 하면서 PSAT와 NCS에 집중하여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함. 7급 PSAT과 NCS가 유사하며, 개인의 방향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지역인재 7급 공무원이 되고 싶다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여 몰두해 준비하는 것이 좋다.

Q8. 지역 인재 7급 선발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들이 궁금합니다. 선발 시험을 준비하던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들이 궁금합니다.

합격자 1
아직 예비 졸업자가 아닌데 지역인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교내 성적 10%, 토익, 한국사 등 요건을 잘 확인해 보고 이런 건 미리 맞춰도 괜찮다고 생각함. 그러면서 내가 정말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지, 공직 생활이 맞을 것 같은지 생각해보길 추천함.
수험생활 같은 경우는 길게 할 게 못 되고 무조건 1년 내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함. 미리 공부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걸 추천함.
본인은 이 시기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함.
10월부터 11월이 아직 교내 면접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내 면접을 통과할지도 의심이 되고, PSAT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의심이 될 것임.
이때 가장 힘이 되는 말이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함. 지금 그 시기에 본인을 믿을 수 있는 건 자기 자신밖에 없음. 본인을 믿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씩 보듬어 나가다 보면 어느덧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임.

합격자 2
저학년부터 PSAT을 일찍 준비하지 말고 4학년 때 바짝 하는 걸 추천함.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걸 정말 많이 두려워할 정도로 부끄러움이 많았음.
그럼에도 노력 하나만으로 교내 면접, 필기, 최종 면접까지 뚫어냈음.
어떤 어려움이 있건, 노력 하나면 합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음.
그렇지만 이 PSAT은 무조건 많은 시간을 들이기보다는, 얼마나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쉴 땐 제대로 쉬면서 스트레스는 해소하고,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하루 목표치를 매일매일 달성해 나가는 등 효율적으로 노력하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음.
시험 준비 과정 중에 가장 후회되는 게 있다면 시험 루틴에 맞춰서 생활하지 않았다는 점임. 실제로 생활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시험을 치르게 되다 보니 그때 머리가 약간 멍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었음.
최소 한 달만이라도 시험날 루틴에 맞춰서 생활해보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성적을 얻을 수 있

다고 생각함.

합격자 3
구청 행정인턴과 보호관찰소에서의 경험을 통해 공무원 직업에 대한 환상이 깨진 본인의 경험을 예시로 이 직업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함. 단순히 7급 공무원이라는 직위가 높아 보인다는 이유로 접근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이 직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함. 또한, 지역 인재 관련 정보를 검색하여 다양한 공부법을 참고했지만, 결국 자신만의 공부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본인도 기본 강의만 수강한 경험이 있음. 강사들의 노하우가 있지만, 결국 공부와 문제 해결은 개인의 몫이므로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체화하고 습득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중요함. 더 나은 방법을 찾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개인적인 학습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단기간에 높은 성적을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임.

합격자 4
준비 시간이 짧아 헌법 인강을 들으며 급하게 공부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후회가 많았음. 지역인재 7급 시험을 고려하는 이들에게는 빠르게 공부를 시작해 시간에 대한 후회를 남기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음. 단기적으로 불가능한 시험은 아니지만, 멘탈적으로 힘들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추가질문

Q1. 학점 관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합격자 1
수업 열심히 나가고, 영강같이 어려운 수업은 녹음을 했음. 시험 기간 되면 재생하면서 활용했음. 본인의 학과는 암기 과목이 상당히 많아서, 탭에 정리하고 중요 키워드들을 지운 후 계속 보면서 빈칸을 채워갔음. 시험기간 한 달 전부터 이런 방법으로 학점 관리에 최선을 다함.

합격자 2
시험이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복습을 꾸준히 하고, 시험 직전 일주일 동안은 복습을 반복함.

Q2. 기출풀이 채점 후 기출 분석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본인만의 기출 분석 방법이나 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합격자 3
- 기출 분석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경험을 공유하며, 오답 노트를 만드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됨. 기출 문제를 풀고 채점하는 과정이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 단계가 필수적임. 또한, 밤돌이 PSAT 해설을 참고하며 문제 이해에 시간을 많이 쏟았고, 각 문제에 대한 상세한 해설이 도움이 됨. 프리미엄 해설 구독을 통해 추가적인 학습을 했으며, 이 과정이 가

장 유익했음. 강사님의 해설을 써놓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많이 함. 기출 분석은 이 정도로만 했음.

합격자 4
- 기출 문제 풀이를 할 때 시험 일주일 전까지 90분 동안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었으며, 90분 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은 따로 오답 정리를 통해 공부함. 채점 후에는 전체 문제를 다 분석하지 않고, 자신이 푼 문제 중 틀린 것, 못 푼 것, 넘긴 것,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린 문제들에 집중적으로 분석함. 기출 문제 분석 방식은 강사님의 방법을 따라 하려고 노력함.
- 언어 논리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했지만, 강사의 설명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함. 강사들의 테크닉을 참고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방법은 따로 기록하여 새로운 노트에 정리함. 이를 통해 문제를 풀 때 유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잊지 않도록 함.
-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처음에는 특히 더 그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에 맞춰 풀어야 하지만,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여 자신의 스킬로 만들거나 새로운 스킬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함.

Q3. 인강 강사님들의 기본서를 복습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본선을 적당히 보고 기출 회독에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선배님들은 기본 수학 기출 문제 중 어느 쪽에 더 치중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합격자 3
-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한 학습 방식을 강조하며, 기본서에 포함된 문제들이 모두 기출 문제라고 함. 종합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자료 분석에 대한 수 연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사님이 제공하는 유용한 팁과 기본 개념을 통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고 함. 이러한 방식 덕분에 기본서를 반복적으로 복습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며, 본인도 기본서를 두 번만 보고 더 이상 열어보지 않았음.
- 기출 문제는 실제 출제된 문제로, 이를 통해 자신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시간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음. 어려운 문제를 틀리든 쉬운 문제를 틀리든 점수 감점은 동일하므로, 취약한 문제는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중요함. 많은 수험생들이 강화 약화 부분이나 퀴즈 문제를 포기하지만, 기출 문제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판단하는 것이 유리함. 따라서 기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합격자 4
- 기본서의 내용은 주로 기출 문제와 7급 PSAT 및 민간 경력 채용 PSAT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기본서를 적당히 보고 기출 문제를 더 많이 푸는 것이 효율적임. 기본서에는 불필요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으며, 문제 해결 기술이나 팁을 제공하므로 이를 습득한 후 기출 문제에 적용해보는 것이 좋음. 만약 특정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기본서를 참고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임.

Q4. 자료에서 안 풀리는 문제는 최대한 풀릴 때까지 혼자서 고민해보라는 조언이 많은데 얼마큼 붙들다가 해설지를 참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합격자 3
혼자서 고민하기보다는 해설지를 통해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을 선호했음. 다른 사람들의 공부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조언이나 꿀팁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에게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함.
질문자가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된다면 그 방식을 유지하되, 해설이나 다양한 해석을 참고하여 문제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고민을 오래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접근하라는 조언을 함. 저자는 문제를 오랫동안 붙잡고 있지 않았던 경험을 공유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합격자 4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경우 5분에서 10분 정도 고민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해설지를 참고함. 혼자 고민하라는 조언을 받지 못해 문제를 혼자 풀었고, 풀리지 않는 문제는 스킵한 뒤 나중에 분석하여 어떤 부분에서 실수했는지를 체크하는 정도로만 진행함. 끈기 있게 문제를 끝까지 풀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음.